

# 금리 인상, 물가 잡으려다 소상공인 잡겠네

### 광주·전남 중기 지난해 10월 기준 대출잔액 58조3000억 금리 0.5% 인상 땀 이자 부담액 업체당 8000만원 이를 뚫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3년째 3D 콘텐츠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A(43)씨는 지난달 직원 3명의 급여를 주기 위해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초 A씨는 대출금리 2%대인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청해 시중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리가 6.5%에 달했지만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돈을 빌렸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주사업이 크게 줄어 지난해에는 인력 1명을 떠나보내기도 했다"며 "한 달에 130만원 가량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데,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아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을 토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국내 기준금리를 11월에 이어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1.25%) 금리로 되돌아갔다.

3%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금융부담을 우려하며 오는 3월 말 다가오는 대출만기를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58조3223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말 잔액(44조2859억원)에 비해 31.7%(14조36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광주는 24조원에서 32조원으로 34.2%(8조원) 증가했고, 전남은 20조원에서 26조원으로 28.7%(6조원) 늘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 가운데 31.9%(18조5961억원)는 비은행권이 차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등 2금융권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동안 62% 급증했다.

인상된 기준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에도 빠르게 반영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이후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0.5% 오른다고 가정할 때 광주·전남 중소기업

887개사의 이자 부담금액은 업체당 평균 8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에 이어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 인상됐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의 사례를 보면 이달 13일 기준 대표 여신상품의 하나인 'KJB개인신용대출'의 월중 평균금리는 4.39%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인 7월(3.54%)과 10월(3.9%)보다 각각 0.85%포인트, 0.4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수신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12개월 만기) 금리는 8월 초 0.9%, 8월 말 0.99%, 10월 말 1.29%, 이달 13일 기준 1.45% 등으로 인상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함이다.

한은 측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이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웃돌며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제시한 3.0%를 유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업이익의 대비 이자비용이 8.48%포인트 늘어날 만큼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며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자영업자 10명 중 4명 폐업 생각 중”

### 전경련 '2021년 실적·2022년 전망' 자영업자 500명 설문 영업실적 감소·자금 사정 악화 등 영향... 23.9% “대안없어 폐업 못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과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5.4%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63.6%는 순이익 감소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올해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작년

대비 9.4%,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전년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0.1%, 20.0% 줄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서 감소한 것이지만, 누적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은 갈수록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40.8%는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가 가장 컸으며,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회복 가능성 작음'(16.7%)을 응답한 자영업자도 꽤 많았다.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 23.8%는 특별한 대안 없이 폐업을 하지 못하고 영업을 이어간다고 답했다.

올해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30.7%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를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개선 한계'(22.9%),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매입비 부담'(12.0%), '금리 상승·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0.1%),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9.8%) 등의 답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 명절과 졸업식, 입학식 등 대목으로 기대감이 있을 연초에도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의 고충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카드 쓰면 기부돼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광주·전남사랑' 아너스 V2 카드' 경품 행사에서 추첨된 우수 고객에게 골드바를 선물했다. 카드를 쓸 수록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되는 이 상품은 지난해 10월 기능을 강화해 다시 선보였다. <광주은행 제공>

## 아웃도어 최적 '갤럭시 엑스커버 5' 출시

삼성전자는 27만5000원  
삼성전자는 LTE 스마트폰 '갤럭시 엑스커버(XCover) 5' (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갤럭시 엑스커버 5는 134.8mm(5.3형)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급제와 이동통신 3사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27만5000원이다. 색상은 검은색과 흰색 2가지다. IP68 방수방진 등급을 지원하고, 굽힘이나 충격에 강한 고릴라 글라스6를 적용해 강력한 내구성을 갖춰 야외활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탈부착이 가능한 3000mAh 배터리를 탑재해 충전 걱정을 덜 수 있고, 15W 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이밖에 '듀얼 LED 플래시'(Dual LED Flash)



기능을 제공해 일반 스마트폰의 LED 플래시보다 좁고 멀리 빛을 투사할 수 있어 손전등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면과 후면에 각각 500만 화소,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 플랫폼 '튜터링' 수강권 할인 쿠폰과 1대1 초등화상영어 서비스 '튜터링 초등' 수강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 코인 거래소 돈세탁 검증 네이버·카카오 선정 유력

업비트 등 '4대' 코인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정밀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FIU에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 즉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검사와 진행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종합 검사에서 특검법이 규정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 지니소프트 250억 투자유치 '잭팟'

### 광주 기반 VR·AR 콘텐츠 개발... 지오모네다와 '블록체인 시스템 협약'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기업 지니소프트가 25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니소프트는 최근 지오모네다와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협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도현 지니소프트 대표와 최일기 지오모네다 대표(지오그룹 회장)가 참석했다. 지오모네다는 가상자산관리와 가상자산마케팅 사업을 벌이는 지오그룹의 그룹사이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지니소프트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사업장을 내고 VR·AR 콘텐츠와 지역 관광과 연계한 블록체인(암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지니소프트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여행 프로그램(P2E)과 메타버스 플랫폼은 오는 5월 신안 자은도에 문을 여는 씨원리조트와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체험할 수 있다.

김도현 대표는 "이번 투자로 광주·전남의 지역 기반 우수 기술 인재를 영입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목표를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98회)

| 당첨번호 |               |               |    |    |    | 2등 보너스숫자  |
|------|---------------|---------------|----|----|----|-----------|
| 13   | 17            | 18            | 20 | 42 | 45 | 41        |
| 등위   |               | 당첨금(원)        |    |    |    | 당첨자수      |
| 1    | 6개 숫자일치       | 2,076,499,657 |    |    |    | 12        |
| 2    |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 78,358,478    |    |    |    | 53        |
| 3    | 5개 숫자일치       | 1,568,354     |    |    |    | 2,648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    |    | 129,576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    |    | 2,227,628 |

## 자치분권 2.0시대

### 순창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대망의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원드립니다.**

**순창군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